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100003-10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4
<https://kostat.go.kr/asdk/> 2024



통계청
통계개발원

인구 영역의 주요 동향

계봉오 (국민대학교)

- 한국의 총인구는 2020년 5,183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고령인구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다.
- 출산율은 지속적이고 빠르게 하락하여 2023년에 출생아 수는 23만 명,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다. 모든 시도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1.00명 미만이었는데, 이는 초저출산 현상이 모든 시도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기대수명은 197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2년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조사망률(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은 시도별로 상이하나 연령 표준화 사망률과 기대수명은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연령구조의 차이가 지역 간 조사망률 차이의 원인을 보여준다.
- 국내 인구이동률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경기, 인천, 충청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지속되고 있다. 반면, 서울, 영남권, 호남권은 순유출을 경험하고 있다.
- 국제 인구이동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내국인의 순유입과 외국인의 순유출이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인구이동 제한이 없어진 2022~2023년 기간에는 그 반대로 내국인의 순유출과 외국인 순유입이 증가했다.

인구변화는 사회경제적 변화의 원인이자 결과이다. 과거 한국 사회의 출산율 하락은 유소년 인구 부양 부담을 완화하고 유소년층에 대한 교육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빠른 경제발전에 기여했다. 일종의 ‘인구보너스(demographic bonus)’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구 고령화가 가져오는 부정적 파급효과로 인해 ‘인구오너스(demographic onus)’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한국 사회의 출산율 하락은 경제발전, 교육 및 건강 수준이 향상된 결과이다. 한국 사회의 인구 주요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우선 한국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를 연령구조, 성비, 지역분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인구 고령화, 성비 불균형,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파악해 본다. 다음으로 출산, 사망, 인구이동 등 인구변동 요인들의 추이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각각의 요인들이 한국 사회의 인구 고령화와 지역 간 인구 불균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다. 분석자료로는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인구동향조사」, 「생명표」, 「국제인구이동통계」, 「사회조사」를 활용한다.



인구구조 변화

한국 사회의 인구구조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이는 출산율과 사망률이 빠르게 하락한 결과이다. 최근 매우 낮은 출산율이 지속됨에 따라 빠른 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부정적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인구구조는 인구의 규모와 구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인구구조는 출산, 사망, 이동 등 인구변동 요인뿐만 아니라 경제 규모 및 노동시장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 <표 I-1>은 1980년 이후 한국의 총인구, 성비, 외국인 인구의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총인구는 1980년 이후 2010년까지 연평균 1.0% 내외로 꾸준히 증가해 오다가 2010년대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어 2020년 5,183만 명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하였다. 다만 2023년에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2022~2072」에 따르면, 1.0명 미만의 매우 낮은 합계출산율이 2030년대 말까지 계속되고, 기대수명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인구 감소 속도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인구의 성비는 1980년 이후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표 I-1>에서 2000년대 이후 외국인 인구의 규모가 빠르게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 인구는 1980년 3만 명에 불과했으나 2000년에는 15만 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고, 2010년에는 59만 명, 2023년에는 약 194만 명

<표 I-1> 총인구, 성비 및 외국인 인구, 1980~2023

연도	총인구		성비 (여자 100명당)	외국인 인구	
	인구 (1,000명)	인구 성장률 (%)		인구 (1,000명)	비율 (%)
1980	37,436	1.5	100.5	30	0.1
1985	40,448	1.5	100.2	29	0.1
1990	43,411	1.4	100.7	21	0.0
1995	44,609	0.5	100.8	55	0.1
2000	46,136	0.7	100.8	151	0.3
2005	47,279	0.5	99.9	238	0.5
2010	48,580	0.5	99.0	590	1.2
2015	51,069	0.5	100.6	1,364	2.7
2016	51,270	0.4	100.5	1,414	2.8
2017	51,423	0.3	100.4	1,479	2.9
2018	51,630	0.4	100.5	1,652	3.2
2019	51,779	0.3	100.5	1,779	3.4
2020	51,829	0.1	100.0	1,696	3.3
2021	51,738	-0.2	99.9	1,650	3.2
2022	51,692	-0.1	99.9	1,752	3.4
2023	51,775	0.2	100.1	1,935	3.7

주: 1) 2010년 이전 자료는 5년 단위 현정조사 방식으로 집계된 자료이고, 2015년 이후 자료는 매년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집계된 자료임.
 2) 인구성장률= $[(\ln(P_t \div P_0) \div t) \times 100]$. P_0 는 해당 기간 시작시점 인구, P_t 는 해당 기간 종료시점 인구. t는 해당 기간 연수임. 2015년 자료의 경우 2010년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집계된 총인구(4,971만 1천 명)를 바탕으로 계산된 수치임.
 3) 성비=(남자 인구 ÷ 여자 인구) × 100.
 4) 외국인인 국내 3개월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이다. 최근 외국인 인구의 규모의 변화를 보면, 2019년 178만 명까지 증가했다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2021년 기간에 감소한 후 2022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비율 역시 1980년 0.1%에 불과했지만, 2000년 0.3%, 2010년 1.2%, 2023년 3.7%로 매우 빠르게 커졌다. 지속적인 초저출산 현상에 대한 대응책으로 외국인 인력 활용에 대한 여론이 커지고 정책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므로 향후 외국인 인구 규모와 비율의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I-2〉는 2015년 이후 인구의 연령구성 변화를 제시한 것으로 인구 고령화 추이를 보여준다. 유소년 인구는 2015년 695만 명에서 2023년 562만 명으로 감소했고, 생산연령 인구 또한 2023년 3,655만 명으로 2015년에 비해 95만 명 감소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23년에는 961만 명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변화는 구성비에도 반영되고 있는데, 유소년 인구와 생산연령 인구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고령인구의 비율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초저출산 현상의 지속과 기대수명의 향상을 고려할 때, 유소년 인구 및 생산연령 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 추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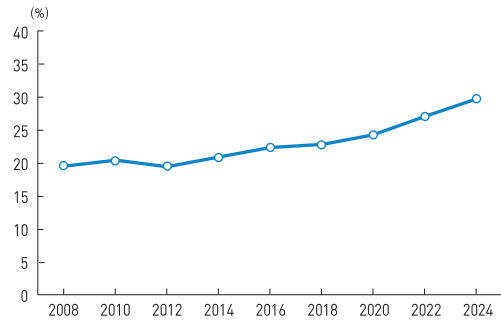
고령인구의 비율 증가는 생산성 약화, 고령 인구 부양 부담 증가 등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노인의 건강 수준 향상이 이와 같은 추세를 부분적으로 상쇄할 수 있다. [그림 I-1]은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좋은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고령인구 중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2008년 19.6%에서 2024년 29.7%로 지난 16년 동안 10.1%p 증가했다. 이는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건강상태의 향상과 함께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I-2〉 인구 연령구성 주요 지표, 2015-2023

	2015	2017	2019	2021	2023
인구(1,000명)					
유소년 인구	6,954	6,683	6,392	6,087	5,619
생산연령인구	37,498	37,569	37,570	36,944	36,546
고령인구	6,617	7,171	7,817	8,707	9,609
구성비(%)					
유소년 인구	13.6	13.0	12.3	11.8	10.9
생산연령인구	73.4	73.1	72.6	71.4	70.6
고령인구	13.0	13.9	15.1	16.8	18.6
부양비(%)					
유소년부양비	18.5	17.8	17.0	16.5	15.4
노년부양비	17.6	19.1	20.8	23.6	26.3
총부양비	36.2	36.9	37.8	40.0	41.7

주: 1) 유소년 인구는 14세 이하 인구, 생산연령인구는 15~64세 인구, 고령 인구는 65세 이상 인구임.
 2) 유소년부양비=(유소년 인구 ÷ 생산연령인구)×100.
 3) 노년부양비=(고령인구 ÷ 생산연령인구)×100.
 4) 총부양비=((유소년 인구+고령인구) ÷ 생산연령인구)×100.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그림 I-1] 65세 이상 인구 중 주관적 건강이 좋은 인구 비율, 2008-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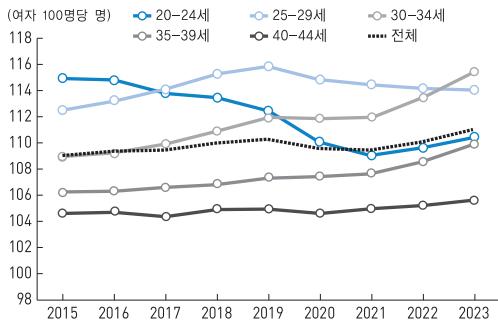
주: 1) 65세 이상 인구 중 자신의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해 '매우 좋음' 또는 ' 좋음'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성비의 불균형은 결혼과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I-2]는 결혼과 출산의 주된 연령대인 20~44세 인구의 성비 변화를 세부 연령대별로 보여준다. 20~44세 연령집단 전체의 성비는 20~44세 여성 100명당



109~110명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성비 변화는 세부 연령대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20~29세와 30~34세의 성비가 20~44세 전체 성비보다 일관되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35세 이후 연령대는 20~44세 전체 성비와 비슷하거나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1980~1990년대생의 성비가 매우 불균형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국 사회의 20~30대 성비 불균형은 심한 수준이며, 이는 혼인율을 낮추는 중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림 I-2] 20~44세 인구의 성비, 2015~2023



주: 1) 성비=(남자 인구÷여자 인구)×100.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인구구조 변화는 지역별로 다른 모습을 보인다. <표 I-3>은 2015년 이후 지역별 인구구성의 변화를 보여준다. 서울의 인구 규모는 2015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5년 19.4%에서 2023년 18.1%로 1.3%p 감소했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인구의 비율은 2015년 49.5%에서 2023년 50.7%로 1.2%p 증가했다.

중부권 인구의 비율은 소폭 증가한 반면 영남권 인구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호남권 인구의 비율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시도별로 보면, 특·광역시 인구의 비율은 감소하고 도지역 인구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서울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와 도지역 인구의 비율이 증가한 원인은 경기 인구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 경기 인구는 2015년 1,248만 명에서 2023년 1,382만 명으로 134만 명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도지역 인구의 증가 또한 134만 명이 증가했다. 한편 동부, 읍부, 면부 인구의 비율은 동부와 면부가 감소하고 읍부가 증가하고 있지만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표 I-3> 지역별 인구구성 비율, 2015~2023

	인구구성 비율(%)					2015년 대비 2023년 증감 (%p)
	2015	2017	2019	2021	2023	
서울	19.4	18.9	18.6	18.3	18.1	-1.3
권역						
수도권	49.5	49.6	50.0	50.4	50.7	1.2
중부권	13.6	13.8	13.9	13.9	14.0	0.4
호남권	11.2	11.2	11.1	11.0	11.0	-0.2
영남권	25.6	25.4	25.0	24.7	24.4	-1.2
시도						
특·광역시	45.3	44.7	44.2	43.6	43.4	-1.9
도	54.7	55.3	55.8	56.4	56.6	1.9
동읍면						
동부	81.6	81.3	81.2	81.2	81.3	-0.3
읍부	9.0	9.3	9.8	10.0	9.9	0.9
면부	9.3	9.4	9.1	8.8	8.8	-0.5

주: 1)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포함함.
2) 중부권은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강원을 포함함.
3) 호남권은 광주, 전북, 전남, 제주를 포함함.
4) 영남권은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을 포함함.
5) 특·광역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을 포함함.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인구 고령화 추세 또한 지역적으로 다를 수 있다. <표 I-4>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 및 그 증가 속도가 지역에 따라 이질적임을 보여 준다. 서울의 고령인구 비율은 2015년 12.3%에서 2023년 18.3%로 6.0%p 증가했다. 권역별로 보면, 같은 기간 모든 권역에서 고령인구 비율이 증가했다. 수도권의 고령인구 비율이 네 개 권역 중 가장 낮았는데, 이는 경기도로 이주하는 청년층 인구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2015년에는 영남권의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낮았으나, 2017년 이후부터는 중부권의 고령인구 비율이 영남권과 호남권보다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전과 세종으로 청년층이 유입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표 I-5>는 지역별 외국인 비율의 변화를 보여 준다. 외국인 비율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2023년에는 다시 증가했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외국인 비율이 2023년 현재 4.3%로 다른 권역보다 0.6~1.6%p 정도 높으며, 영남권의 외국인 비율이 가장 낮다. 시도별로는 특·광역시보다 도지역의 외국인 비율이 더 높으며, 동읍면별로는 읍면부 외국인 비율이 2015년 이후 크게 증가하여, 2023년 기준 읍부 5.0%, 면부 7.0%로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종합하면 수도권, 도지역, 읍면부에서 외국인 비율이 높은 현상이 2015년 이후 지속되고 있다.

<표 I-4> 지역별 65세 이상 인구 비율, 2015-2023

	65세 이상 인구 비율(%)					2015년 대비 2023년 증감 (%p)
	2015	2017	2019	2021	2023	
전국	13.0	13.9	15.1	16.8	18.6	5.6
서울	12.3	13.4	14.7	16.5	18.3	6.0
권역						
수도권	11.2	12.1	13.2	14.8	16.5	5.3
중부권	14.4	15.2	16.2	18.0	19.6	5.2
호남권	16.5	17.4	18.3	19.9	21.5	5.0
영남권	14.0	15.3	16.8	18.9	20.9	6.9
시도						
특·광역시	12.1	13.2	14.6	16.4	18.2	6.1
도	13.7	14.5	15.5	17.2	18.8	5.1
동읍면						
동부	11.2	12.3	13.5	15.2	16.9	5.7
읍부	14.4	15.0	15.9	17.5	19.3	4.9
면부	26.7	27.2	28.6	31.3	33.1	6.4

주: 1)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포함함.
 2) 중부권은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강원을 포함함.
 3) 호남권은 광주, 전북, 전남, 제주를 포함함.
 4) 영남권은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을 포함함.
 5) 특·광역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을 포함함.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표 I-5> 지역별 외국인 비율, 2015-2023

	외국인 비율(%)					2015년 대비 2023년 증감 (%p)
	2015	2017	2019	2021	2023	
전국	2.7	2.9	3.4	3.2	3.7	1.0
서울	3.4	3.5	4	3.7	3.9	0.5
권역						
수도권	3.4	3.6	4.2	3.9	4.3	0.9
중부권	2.2	2.5	3.1	2.9	3.7	1.5
호남권	1.8	2	2.7	2.5	3.2	1.4
영남권	1.9	2	2.4	2.2	2.7	0.8
시도						
특·광역시	2.4	2.5	3	2.8	3.1	0.7
도	2.9	3.2	3.8	3.5	4.2	1.3
동읍면						
동부	2.4	2.6	3	2.9	3.2	0.8
읍부	3.2	3.5	4.3	4	5	1.8
면부	4.8	5	6	5.3	7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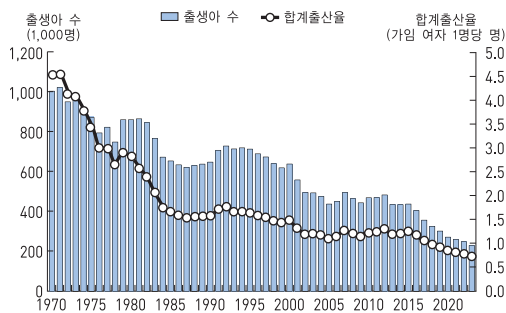
주: 1)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포함함.
 2) 중부권은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강원을 포함함.
 3) 호남권은 광주, 전북, 전남, 제주를 포함함.
 4) 영남권은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을 포함함.
 5) 특·광역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을 포함함.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초저출산의 지속

한국 사회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년 동안 초저출산의 기준인 1.3명보다 낮은 상태로 머물러 있다. [그림 I-3]은 1970년 이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의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은 모두 하락하는 추세인데, 단기적으로 유지되거나 상승했던 기간이 있기도 하다. 우선, 1980년대 초반과 1990년대 중반에는 합계출산율이 하락했지만 출생아 수는 유지되거나 다소 증가했는데, 이는 이 시기에 가임기 여성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2010년 전후에는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각각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다가 2010년대 중반 이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그 결과, 출생아 수는 2015년 약 44만 명에서 2023년 23만 명 수준으로, 합계출산율은 2015년 가임 여자 1명당 1.24명에서

[그림 I-3]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1970-2023



주: 1) 합계출산율은 가임 여자(15~49세)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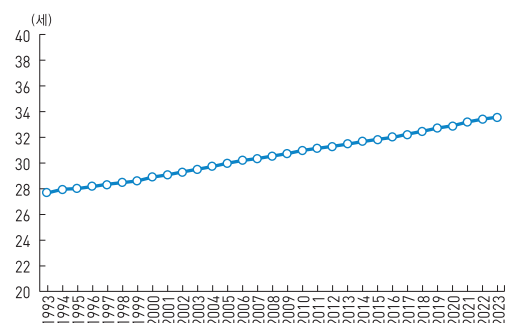
2) 2023년 자료는 잠정치임.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2023년 0.72명으로 하락했다. 한편,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4년 4월과 5월 출생아 수는 각각 1만 9,049명, 1만 9,547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00명가량 증가했는데,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은 2022년 9월(전년 동월 대비 13명 증가) 이후 처음이며, 실질적으로는 2015년 11월(전년 동월 대비 1,088명 증가) 이후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2024년 7월과 8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1,000여 명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출산율 반등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출산율의 수준과 함께 출산 시기(출산연령) 또한 인구변화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출산율 지표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합계출산율은 출산 시기의 변화를 반영하며, 부모의 연령은 자녀의 양육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그림 I-4]는 1993년 이후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의 추이를 보여준다. 이 수치는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그림 I-4]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 1993-2023



주: 1)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 = $\frac{\sum((\text{모의 각세 연령} + 0.5) \times \text{모의 각세 연령별 출산율})}{\sum(\text{모의 각세 연령별 출산율})}$. 여기에서 모의 연령 범위는 15~49세임.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모의 평균 출산연령과는 다른데, 연령별 출산율을 가중치로 적용해 15~49세 여성의 평균 연령으로 산출한다. 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해당 기간에 출산한 여성의 평균 연령이므로 출산 시기 뿐만 아니라 가입기 여성 출생코호트의 크기 차이를 반영하지만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출산 시기만을 반영한다는 특징이 있다.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1993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1993년 27.7세에서 2023년 33.6세로 30년 동안 6세 정도 상승했다.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점차 하락하는 반면,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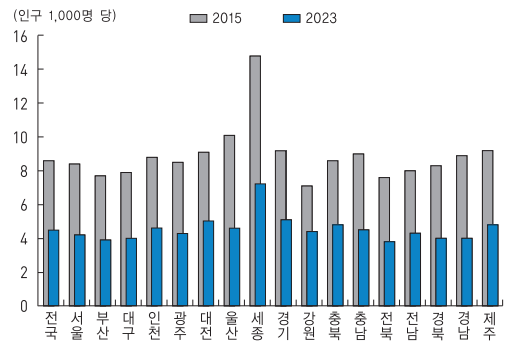
출산율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 지역의 출산율이 비도시 지역보다 낮다. 한편 인구 대비 출생아 수(조출생률)는 도시 지역에서 높은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젊은층이 주로 도시에 거주하기 때문이다. [그림 I-5]는 시도별 조출생률과 합계출산율의 변화를 보여준다. 조출생률을 보면, 두 시점 모두 세종을 제외하면 시도 간 차이는 크지 않다. 반면 합계출산율의 시도 간 차이는 더 뚜렷한데, 특히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다른 지역보다 매우 낮다. 조출생률은 출산율뿐만 아니라 인구구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매우 낮지만 조출생률은 다른 시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모든 시도의 조출생률과 합계출산율이 2015년 대비 2023년 큰 폭으로 떨어졌다. 서울의 조출생률은 2015년 인구 1,000명당 8.4명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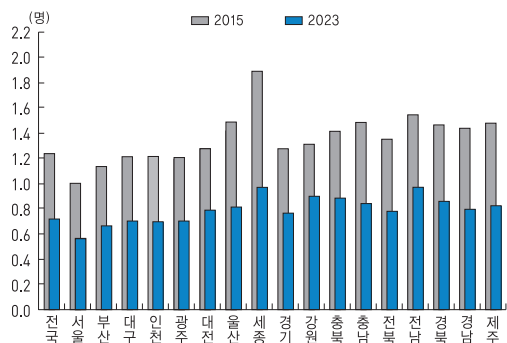
서 2023년 4.2명으로,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은 1.00명에서 0.55명으로 하락했다. 출산율이 가장 높은 세종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조출생률은 14.8명에서 7.2명으로, 합계출산율은 1.89명에서 0.97명으로 하락했다. 대부분의 시도에서 조출생률은 2015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합계출산율은 40% 정도 하락했다. 2023년에 모든 시도의 합계출산율이 1.00명 아래로 떨어

[그림 I-5] 시도별 조출생률과 합계출산율, 2015, 2023

1) 조출생률



2) 합계출산율



주: 1) 조출생률=(해당연도 출생아 수÷해당연도 주민등록연앙인구)×1,000.
 2) 합계출산율은 가입 여자(15~49세)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임.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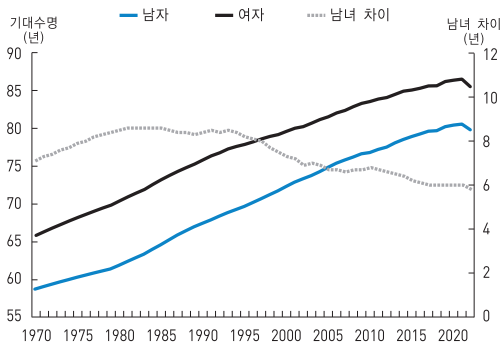


졌는데, 이는 초저출산 현상이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대수명과 사망자 수 변화

기대수명은 특정 시점의 연령별 사망률이 장기간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기대되는 평균수명이라 할 수 있는데, 인구의 연령구성과 무관한 사망률 수준을 보여준다. [그림 I-6]은 성별 기대수명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남자의 기대수명은 1970년 58.7년에서 2022년 79.9년으로, 여자의 기대수명은 65.8년에서 85.6년으로 남녀 모두 20년 정도 증가했다. 남녀 기대수명의 차이는 1970년대에는 증가했고,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다가 이후 줄어드는 추세이다. 2022년 현재 남녀 기대수명의 차이는 5.7년이다.

[그림 I-6] 성별 기대수명, 1970-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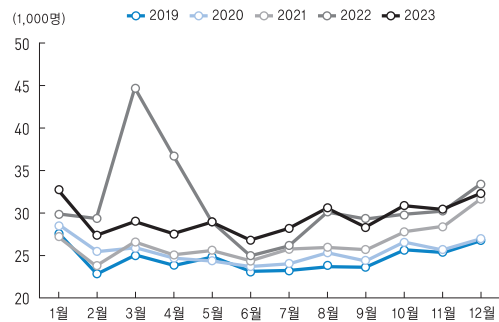


주: 1) 기대수명은 특정 연도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임. '0세의 기대여명'이라고도 함.
 2) 남녀 차이=여자 기대수명-남자 기대수명.
 출처: 통계청, 「생명표」, 각 연도.

1970년 이후 2021년까지 매년 상승하던 기대수명은 남녀 모두 2022년에 최초로 하락했다. 남자의 기대수명은 2021년 80.6년에서 2022년 79.9년으로 0.7년, 여자의 기대수명은 같은 기간 86.6년에서 85.6년으로 1.0년 하락했다.

이러한 최근 기대수명의 하락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 증가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월별 사망자 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증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는 사망자 수가 강한 계절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림 I-7]은 2019~2023년의 월별 사망자 수 추이를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뚜렷한 특징은 2022년 3월과 4월의 사망자 급증이다. 2022년 3월 사망자 수는 4만 4,616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8,057명 증가했고, 4월 사망자는 3만 6,68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1,610명 증가했다. 이러한 사망자 수 증가는 유례가 없는 현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사망자 증가 현상은 완화

[그림 I-7] 월별 사망자 수, 2019-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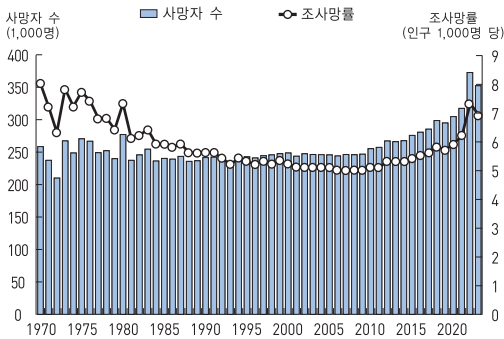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월.

되었고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사망자의 완만한 증가 추세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망률은 인구구성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고령층의 비중이 높은 사회는 기대수명뿐만 아니라 조사망률도 높다. [그림 I-8]은 사망자 수와 조사망률의 변화를 보여준다. 사망자 수와 조사망률의 변화추이는 2010년대 초반 이후 달라졌다. 연간 사망자 수는 2010년까지 25만 명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이후에 증가했으며 2023년에는 35만여 명이 되었다. 조사망률은 1990년대 초반까지 하락한 후 인구 1,000명당 5.0명 수준에서 유지되다가 2010년 이후 상승해 2023년에는 6.9명으로 증가했다. 최근 기대수명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고령인구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최근 조사망률과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사망률 하락이 고령인구 비중 증가로, 고령인구 비중 증가는 사망자 수 증가로 연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I-8] 사망자 수와 조사망률, 1970-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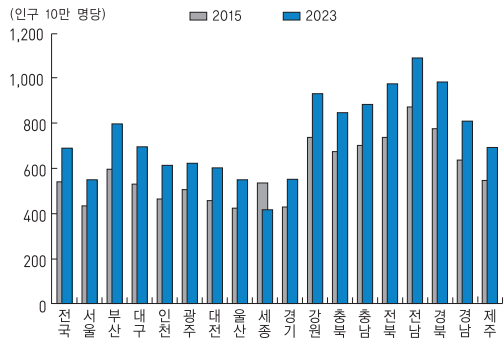


주: 1) 조사망률=(해당연도 사망자 수÷해당연도 주민등록연앙인구)×1,000.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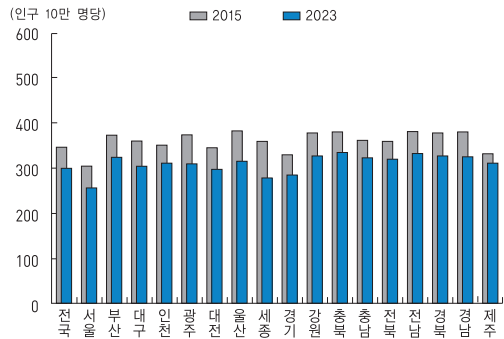
출산과 마찬가지로 사망 또한 지역 간 차이가 존재한다. 지역별 사망률의 차이는 특히 지역의 인구의 연령구성에 영향을 받는다. [그림 I-9]는 2015년과 2023년의 시도별 조사망률과 연령표준화 사망률을 제시하고 있다. 각 시도의 조사망률은 2015년에 비해 2023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하락했다. 조사망률의 증가는 각 시도의 인구구조

[그림 I-9] 시도별 사망률, 2015, 2023

1) 조사망률



2) 연령표준화 사망률



주: 1) 조사망률=(해당연도 사망자 수÷해당연도 주민등록연앙인구)×100,000.
2)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표준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임. 표준인구는 2005년 주민등록연앙인구임.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가 고령화되면서 사망자 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연령 별 사망률이 하락하면서 다소 떨어졌다. 사망률 하락 → 고령인구 비중 증가 → 사망자 수 증가 라는 전국 수준에서 확인된 패턴이 모든 시도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조사망률은 두 시점 모두 시도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도지역의 조사망률이 특·광역시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두 시점 모두 시도 간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다. 또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시도편): 2022~2052년」에 따르면, 2023년 전국의 기대수명은 83.5년이고 서울의 기대수명이 85.0년으로 가장 높으며, 기대수명이 가장 낮은 전남의 기대수명도 83.0년으로 그 차이가 크지 않다. 즉, 이는 시도 간 조사망률 차이가 사망 수준의 차이가 아니라 연령구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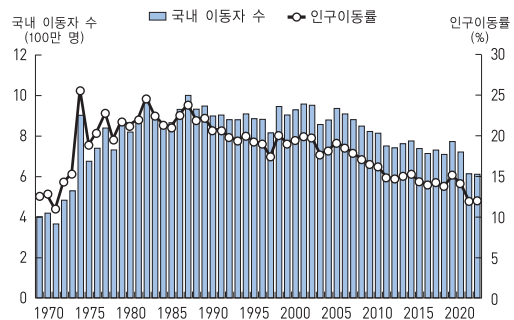
국내 인구이동 추이

인구이동은 출산, 사망과 더불어 인구변화의 주요 원인이다. 출산과 사망은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지만, 인구이동은 사회적 현상이다. 여기에서는 행정 읍면동의 경계를 넘어서는 거주지 이동을 국내 인구이동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추이를 살펴본다.

[그림 I-10]은 1970년 이후 국내 이동자 수와

인구이동률의 추이를 보여준다. 국내 이동자 규모는 1990년대 초반까지 증가한 후, 연간 900만 명 수준으로 2000년대 중반까지 유지되다가 이후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인구 100명 당 이동자 수인 인구이동률은 1980년대 초반 이후 감소하고 있다. 2023년의 국내 이동자 수는 약 612만 명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이는 국내 이동자가 가장 많았던 1988년의 997만 명보다 40% 정도 낮다. 인구이동률 역시 12.0%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었는데, 이는 인구이동률이 가장 높았던 1975년 25.5%의 절반에 못 미친다. 이는 국내 인구이동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준다.

[그림 I-10] 국내 이동자 수와 인구이동률, 1970~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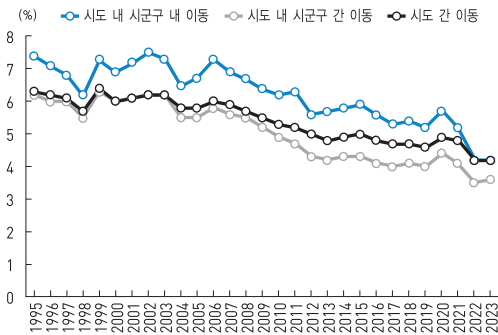


주: 1) 인구이동률은 주민등록연앙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임.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각 연도.

[그림 I-11]은 1995년 이후 유형별 국내 인구이동률 추이를 보여준다. 시도 내 시군구 내 이동은 단거리 이동, 시도 간 이동은 장거리 이동, 시도 내 시군구 간 이동은 그 중간 형태라 할 수

있는데, 모든 유형의 인구이동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전반적으로 가장 많은 이동 패턴은 시도 내 시군구 내 이동이며, 시도 내 시군구 간 이동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2023년 현재 시도 내 시군구 내 이동률은 인구 100명당 4.2명, 시도 내 시군구 간 이동률은 3.6명, 시도 간 이동률은 4.2명으로 전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그림 I-11] 유형별 국내 인구이동률, 1995-2023



주: 1) 인구이동률은 주민등록연앙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임.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각 연도.

국내 인구이동이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인구 이동 패턴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표 I-6>은 2023년 시도별 인구이동률을 보여준다. 전입률과 전출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으로 총전입률은 인구 100명당 14.6명, 총전출률은 14.1명이다. 이는 세종의 인구이동이 다른 지역들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순이동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으로 인구 100명당 1.1명이다. 이는 2023년 인천의 인구가

인구이동으로 인해 1% 이상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인천과 세종을 제외한 다른 특·광역시는 2023년에 순유출을 경험했으며, 경기, 충북, 충남을 제외한 도지역에서도 순유출이 일어났다. 요약하면, 인구이동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경기, 인천, 충청권은 인구이동으로 인해 인구가 증가했다.

<표 I-6> 시도별 인구이동률, 2023

	총전입률	총전출률	순이동률 (%)
전국	12.0	12.0	0.0
서울	12.9	13.3	-0.3
부산	11.1	11.4	-0.3
대구	12.5	12.7	-0.2
인천	14.3	13.2	1.1
광주	11.5	12.1	-0.6
대전	12.9	13.1	-0.2
울산	10.6	11.1	-0.6
세종	14.6	14.1	0.4
경기	12.4	12.1	0.3
강원	11.4	11.4	-0.1
충북	11.7	11.5	0.2
충남	12.6	11.8	0.7
전북	10.7	11.0	-0.3
전남	10.2	10.3	-0.1
경북	9.9	10.3	-0.3
경남	9.2	9.7	-0.5
제주	12.1	12.4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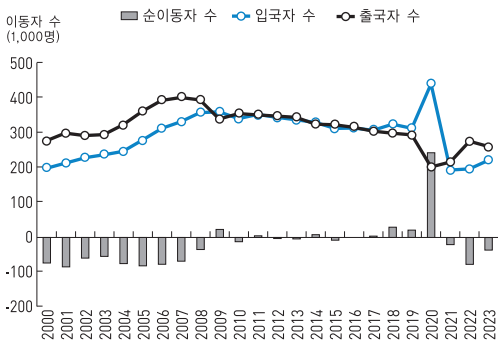
주: 1) 총전입률은 해당 시도 주민등록연앙인구 100명당 전입자 수임.
2) 총전출률은 해당 시도 주민등록연앙인구 100명당 전출자 수임.
3) 순이동률은 해당 시도 주민등록연앙인구 100명당 전입자수와 전출자수의 차이임.
출처: 통계청, 「국내이동통계」, 2023.



국제 인구이동

국제 인구이동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이동을 의미한다. 국제 인구이동은 노동시장 상황, 국가의 이민 정책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국제 인구이동 흐름에 큰 변화가 있었다. [그림 I-12]는 내국인의 2000년 이후 입·출국 추이를 보여준다. 2000년대 후반까지는 출국자가 입국자보다 많은 패턴이 유지되다가 2010년 이후에는 입국자와 출국자의 규모가 거의 비슷해졌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입국자가 출국자보다 24만 명 정도 많았는데, 이는 해외 거주 내국인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에 대거 유입되었던 상황을 반영한다. 2022년에는 내국인의 순유출이 8만 명으로 2000년대 수준으로 증가했는데,

[그림 I-12] 내국인 입·출국자 수, 2000-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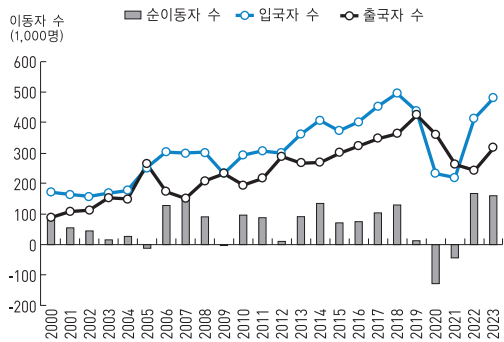
주: 1) 순이동자 수=입국자 수-출국자 수.
출처: 통계청, 「국제인구이동통계」, 각 연도.

이는 2020년 이후 출국을 미뤘던 내국인의 출국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23년에는 순유출이 3만 9,359명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19가 내국인의 국제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I-13]은 2000년 이후 외국인의 입·출국 추이를 보여준다. 연도마다 차이는 있지만 2000년 이후 외국인 입국자 수는 출국자 수보다 10만여 명 많은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2020~2021년 기간에 순유출이 발생했다. 순이동자 수는 2022년과 2023년 각각 16만 8,377명과 16만 668명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2020~2021년 기간의 입국자 감소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의 입국이 제한되었던 상황을

[그림 I-13] 외국인 입·출국자 수, 2000-2023



주: 1) 순이동자 수=입국자 수-출국자 수.
출처: 통계청, 「국제인구이동통계」, 각 연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출국자는 2019년 42만 5,557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2019년 하반기에 단기간 모국 방문을 목적으로 출국했다가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경우가 많아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맺음말

한국 사회의 인구구조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출생아 수의 지속적인 감소와 기대수명의 향상이 함께 진행되면서 고령인구의 비중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인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과 국제 인구이동 패턴에 단기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코로나19 이전의 추세로 복귀하고 있다. 한편 고령인구의 건강 수준은 향상되고 있는 추세인데, 인구 고령화의 파급효과를 이해할 때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

이다.

출산율과 사망률의 하락, 외국인 인구의 증가는 모든 시도에서 진행되고 있다. 인구이동률은 시도별 차이가 있지만 모든 시도에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요약하면, 지역별로 인구변화 추세에 차이가 있지만, 출산율, 사망률, 인구이동률의 감소와 고령인구 및 외국인 인구의 증가는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최근 한국 사회의 인구변화는 지역 간 차이보다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인구변동 흐름이 더 주요하다는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